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교회와 최후의 것들, 세션 10, 교회 의식, 교회 통치, 교회에 대한 핵심 가르침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와 그의 교회 교리와 마지막 것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교회의 의식, 교회의 통치, 교회에 대한 핵심 가르침, 교회의 봉사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의식이나 성례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교회 교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교회인 우리에게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두 가지 의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에 봉사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귀와 눈을 향하고, 하나님은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촉각, 미각, 후각으로 강화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연례 축제와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세례와 성만찬의 의식이나 거룩한 표징 또는 성례전에서 복음이 극화되어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단어는 주 예수께서 교회에 두 가지 관행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례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행 2:38, 고린도전서 11:26). 세례.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세례와 회개를 전파합니다(마가복음 1:4). 예수님과 요한은 모두 오실 영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오순절에 오셨습니다(누가복음 3:16, 사도행전 1:4-5). 예수님은 세례를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를 만드는 것의 일부로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28:18-20에서 이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세례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동일시한다고 가르칩니다(로마서 6:3-4). 그는 그리스도인의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교회들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잘못 믿습니다.

이것은 영아 세례를 가르치는 교회와 신자 세례를 가르치는 일부 교회에 해당합니다. 영아 세례의 경우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 교회는 모두 영아 세례 또는 재생을 가르칩니다. 소위 회복 운동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교회와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는 종종 신자의 세례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세례를 행하는 것보다 우선합니다. 고린도전서 1: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맥락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세례를 준 부부를 떠올렸습니다. 바울이 "나는 너희 중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세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례가 성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에 대한 견해. 교회마다 기독교 세례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 루터교, 개혁신교, 침례교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세례를 받지 않은 유아와 성인에게 세례를 줍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13절에 따르면,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없다면 꼭 사야 합니다. 저렴한 페이퍼백입니다. 공식입니다.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교회의 보편적인 가르침 도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은 수십억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공식입니다. 간단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로마 가톨릭 친구들이 믿는 바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교리 문답 12장 13절에 따르면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교회에 통합되고,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세례는 말씀 안에서 물을 통한 재생의 성사입니다. 루터교 미주리 시노드 웹사이트에 따르면, LCMS는 루터교가 세례를 기적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고 인용합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의 선물을 창조하고 강화하는 것을 통해 기록되거나 말씀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유아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아의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유아가 믿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거듭남, 거듭남은 세례에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5-7, 디도서 3:5-6. 루터교인들은 유아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믿음을 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나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힘에 의해 사람의 마음에 창조될 수 있습니다. LCMS는 세례가 절대적으로 대문자이며 구원에 필요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논평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세례가 재생을 가져온다는 로마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아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개혁주의 기독교인 동료로 받아들이는 루터교 형제 자매들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데, 그들이 신앙이 있거나 세례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개혁 기독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에 따르면, 세례에 대한 개혁된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전으로, 세례받은 당사자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입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의 언약,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거듭남,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바쳐 새로운 삶 안에서 걷는 것에 대한 표징과 인장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징과 인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성경적 언어.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정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의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성례를 비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큰 죄이지만, 은혜와 구원은 분리할 수 없이 묶여 있거나 첨부되어 있어서 아무도 이 성례 없이는 거듭나거나 구원받을 수 없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의심할 여지 없이 거듭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표징과 인장의 언어는 로마서 4장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징, 곧 믿음으로 오는 의의 인장을 받았다는 것을 읽습니다. 로마서 4:11. 표징의 의미는 상징입니다. 침례교의 생각과 꽤 비슷합니다.

즉, 할례는 종족 번식의 뿌리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정화를 상징했습니다. 영적 할례는 마음의 정화입니다. 할례는 표징일 뿐만 아니라 인장입니다.

그것은 표징이 의미하는 바를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성서는 어디에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할례가 구약에서 은혜의 표징과 인장이었다면, 기독교 세례와 성만찬은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과 인장입니다. 즉, 기독교 세례는 분명히 정화를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아나니아는 바울이 된 사울에게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 의식이 그것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는 그것이 상징하고, 정화의 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확실히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표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축복하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세례와 주의 만찬도 모두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가 의미하는 것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는 실제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합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없애고, 주님의 만찬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치거나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치셨음을 약속하시고, 그는 그것을 상징하시고, 그는 그 의식이 의미하거나 상징하는 것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침례교의 기독교 세례에 대한 관점은 2000년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신자를 물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히고,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한 신자의 믿음, 죄에 대한 신자의 죽음, 옛 삶의 매장,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걷는 부활을 상징하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최후 부활에 대한 그의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교회 조례이기 때문에 교회 회원의 특권과 성만찬에 대한 전제 조건입니다.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룰 시간은 없지만 로마 가톨릭교와 루터교는 세례가 세례를 받는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혁신교회와 침례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 루터교, 개혁신교회는 유아와 성인에게 세례를 주고, 침례교는 신자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로마 가톨릭, 루터교, 개혁신교회는

뿌리기, 붓기, 침수에 의한 세례를 허용하지만, 이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침례교는 침수에 의한 세례만 합니다. 주의 만찬.

예수께서는 교회에 또 다른 의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만찬입니다. 누가복음 22:19과 20은 그 장소 중 하나이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1, 고린도전서 11장은 주님의 만찬이 제정된 네 장소 중 하나입니다.

요한 복음에는 없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를 대신한 예수의 희생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관행은 회고적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돌아봅니다. 그것은 전망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그가 올 때까지 그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다가올 세상에서는 세례나 성만찬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9. 어거스틴은 성만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감각에 전파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게 된 말씀입니다.

칼빈은 이 점에서 어거스틴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우리는 성찬의 요소를 잡으면서 복음을 만집니다. 꽃다발을 맡거나 개별 잔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나무의 와인이나 자몽에 담긴 복음을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에서 복음을 맛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주 예수께서는 은혜롭게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는 복음을 의식화 하고 우리의 모든 감각에 그것을 베푸십니다. 물론, 우리의 귀는 제정의 말씀이 읽힐 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그것을 보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요소들을 봅니다.

따라서 만찬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이 가르친 것처럼 눈에 보이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감각에 호소하는 감각적 단어입니다. 우리의 귀에만 호소하지 않으신 하느님은 얼마나 좋으신지요.

루터는 로마 가톨릭 순례 등을 반대하며, 그리스도인의 적절한 기관, 적절한 기관은 그의 발이 아니라, 마치 그가 구원받기 위해 순례를 가는 것처럼, 그는 마치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것처럼,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 그의 손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의 적절한 기관, 루터는 말한다, 적절한 기관은 그의 귀입니다. 그는 신앙의 수동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청각적 경험입니다. 로마서 10:17, 믿음은 듣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옵니다. 그는 자신의 요점을 말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의 모든 감각에 어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례도 물이 사람에게 적용됨에 따라 더 많은 감각에 어필합니다. 개혁자들은 만찬에 대한 성경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정에 대한 말씀이 없다면 만찬도 없습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망치지 말고 제대로 읽어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진술이며, 부정 분사는 긍정적인 답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초기 믿음,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며, 우리는 믿음의 연합을 통해 은혜로 그와 결합됩니다. 그것은 수직적 연합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은 수평적 연합에 대해 말하고, 고린도인들이 만찬에서의

학대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던 것에 대해 말하는데, 바울은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것을 바로잡고 바로잡으려고 시도합니다.

빵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은 공통된 빵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허용은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큰 교회라면 공통된 빵이 여러 개 필요할 테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올 것이고, 당신은 한 조각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빵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데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가장 심오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심오하게 말합니다.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심오한 의미입니다. 둘째,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요소에 참여하면서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개인적으로 행할 수 없는 공동 성찬입니다.

만찬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1:17-34,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신자들 중 일부에게 약함과 병, 심지어 죽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잠이라는 완곡어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징계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가 사용한 단어는 우리가 세상에 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교회의 연합을 어기고,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큰 음식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앞서서 먹고 있는 고린도 신자들.

신은 그들을 징죄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몇몇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식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성찬례 또는 감사절입니다.

명사 Eucharist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Jesus gave thanks는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1:24, 감사를 드린 후 빵을 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입니다.

그것은 친교이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 대한 활력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시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기대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상징하는 주님의 만찬,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환유는 두 가지 사물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뉴스에서 들으셨다면, 오늘 백악관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건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비유입니다. 아니면, 다른 도시에 있다면 실례지만, 카디널스는 오늘 두 명의 큰 타자와 두 명의 강한 팔을 위해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즉, 타자와 투수를 의미합니다. 문자 그대로 팔과 타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만찬, 그리스도가 제정한 식사로 그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은혜 언약의 표징과 인장으로 바꾸며, 신약에서 은혜 언약의 지속적인 표징과 인장입니다. 주님의 만찬.

주님의 만찬에 대한 견해. 주님의 만찬에 대한 네 가지 견해가 우세하다. 로마 가톨릭, 루터교, 츠빙글리, 개혁신교, 츠빙글리.

로마 가톨릭의 만찬 관점은 성체 변화라고 불립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에 따르면 사제가 성임되면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칠 권한을 받습니다. 사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목사인 주례자는 말씀의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개혁의 사상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례자는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사제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3시나 11시에 복음을 들으러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사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주요 의식입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은 사제입니다. 그는 특별히 성임받고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바칠 성사적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가 성찬의 요소를 축성할 때 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외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본질 또는 실체와 사고의 아리스토텔레스적 범주를 사용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입니다. 사고는 외부적 특징입니다.

이 설교단의 몇 가지 우연은 정확한 모양, 색상, 크기입니다. 더 작거나, 보라색이거나, 다르게 디자인되었더라도 여전히 설교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유리 설교단이나 플라스틱 설교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중에 장식된 까마귀 등지가 있는데, 위층으로 올라가면 도착합니다. 여전히 설교단이고, 설교단의 본질이나 실체가 설교단이기 때문에 설교단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따르면 사고, 빵의 외형, 와인은 빵과 와인으로 남아 있고 실체는 변합니다.

그것은 기적으로 일어나는 실체 변화입니다. 빵과 포도주의 겉모습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지만, 기적으로 요소의 보이지 않는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합니다. 사제는 미사에서 피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루터는 주님의 만찬을 고려하여 희생과 성체 변화라는 로마 가톨릭 사상을 거부하고 대신 동체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찬은 신에게 바치는 사제의 희생이 아니라, 신이 예배자들에게 베푸는 혜택입니다. 루터는 그것은 그쪽으로 가는 희생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혜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그는 미쳤어. 오, 제 말씀. 루터교 신학에 따르면, 성찬식에서 요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는 라틴어 단어, 라틴어 전치사, 동체성(consubstantiation)과 함께 육체적으로 현존합니다. 동체성. 실체, 본질, ~와 함께.

그의 임재, 그는 빵과 포도주의 요소 안에, 그와 함께, 그리고 아래에 신체적으로 임재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잡해지지만, 이것을 뒷받침하는 특정한 그리스도론이 있습니다.

루터교인들은 그의 부활에서 전능함이라는 신성한 속성이 그리스도의 신성에서 그의 인성으로 초자연적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찬의 동기입니다. 이것은 그의 몸이 모든 곳에 현존할 수 있게 하며, 친교의 요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오, 정중히 말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아. 변화도 아니고 공존도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어.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유익을 취하여 미사에 참여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믿는 참여자들 사이의 연결점은 성령입니다.

개혁파의 성만찬 관점은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의 관점과 다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 교리라고도 불립니다. 그것은 성체 변화와 동체 변화를 모두 거부합니다.

요소들은 변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의 인간 본성에 신성한 속성이 부여되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도 루터교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속성의 소통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걸까요? 대신 개혁주의 관점은 성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부의 오른편에서 믿는 참여자들에게

가져다 줄 때 그리스도께서 만찬에 임재하신다고 주장합니다. 만찬에 대한 츠빙글리의 관점은 다른 세 가지 관점과 다릅니다. 그것이 실제로 올리히 츠빙글리의 관점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전히 그의 이름에 붙어 있습니다.

기념적 관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를 없애는데 있어서의 효과를 떠올리게 하는 기념입니다. 다른 관점과 달리, 그리스도는 만찬에 독특하거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찬의 관점에서 만찬의 신학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같은 네 가지 관점을 다시 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행하면서 언급할 것이지만, 다른 요점들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적 요점을 도출할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대한 신학.

첫째,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교 세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주의 만찬을 지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대표합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받아 먹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명령이다.

저녁 식사 후에 나는 그에게 잔을 주었습니다. 모두 그것을 마셔요. 먹고 마시는 것은 명령이지 선택권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사도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둘째, 주님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은 기념입니다. 그가 배신당한 그날 밤,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할 때 이 말을 자주 듣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1장만 읽는지 모르겠어요. 제정의 말씀 4가지를 번갈아가며 읽어주면 좋겠지만, 괜찮습니다. 예수께서 배신당하신 날, 빵을 드셨습니다.

그분께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것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잔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며 행하라. 그것은 추모이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 수업이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주는 말보다 성경적으로 더 강하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만찬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살아 계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의 희생을 명확히 합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예수와 바울이 말했듯이 새 언약의 희생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가 지키고, 신자들이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그는 우리가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께서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동기를 부여하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넷째, 주님의 만찬은 예수의 교회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반으로 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 과 예수의 공동체로서 서로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빵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데 모두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0:17. 그것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경의를 표하고, 서로를 포함하라고

명령하는데, 고린도인들이 그곳에서, 전에 말했어야 할, 그들의 사랑의 잔치에서 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신약에서는 명령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만찬은 사람들이 주님의 만찬을 경배하는 교회 만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교회 만찬을 했고, 아가페는 사랑의 만찬이라고 불렀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즐겼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겉보기보다, 실제로는 사랑의 잔치, 아가페에서 주님의 만찬을 기념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지 않는 무례함으로 아가페의 의미조차 부인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지 않고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다섯째,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것은 선교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1:26.

주님의 만찬은 설교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섯째,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의 공급을 기념합니다.

그것은 참여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 참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와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서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죄인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관대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의 전파, 기독교 세례, 기도와 함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을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 어느 것도 자동적으로 은혜를 주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희생을 완수하셨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공급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만찬에서 우리는 참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일곱째,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합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입니다 . 미래를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제정하실 때 약속하셨듯이, 나는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실 그 날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는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29 . 바울은 만찬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한다 .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26.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재림을 예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통치를 고려합니다. 또한 교회의 사역을 고려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 정부에 대해 상당히 다르지만, 그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에 대한 믿음을 공유합니다. 공통점을 탐구하기 전에,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교회 정부를 요약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티칸 시국에 있는 로마 주교인 교황의 지도를 받는 전 세계적 위계입니다.

가톨릭교는 교회의 궁극적 권위를 베드로에게 두고, 베드로를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교황 또는 대표자로 여깁니다. 권위는 로마 교회에서 사도적 계승을 통해 전해집니다. 로마 가톨릭교의 가르침에는 사제주의가 포함되는데, 이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교황에게서 주교에게 안수를 통해 전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주교는 또한 그들을 돕는 사제와 집사에 대한 많은 파생된 권한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힘은 지역 교구에서 봉사하는 사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로마 가톨릭 자료와 신학에 따른 것입니다.

주교 정부가 있는 교회는 주교에 의해 통치되며, 주교는 교회의 권위를 갖습니다. 로마는 주교라고 할 수 있지만, 교황이기도 하므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주교 성공회의 주교는 대주교, 대도시 또는 총대주교라고 하는 더 높은 계급의 주교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시노드에서 만납니다. 주교 교회 정부는 단순한 명령 체계가 아니며, 일부 권한은 평신도 교회 협의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요약하자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교에 의해 통치됩니다.

장로교 교회 정부는 대표적이며, 권한을 공의회 위계에 둡니다. 세션 또는 컨시스토리라고 하는 가장 낮은 단계는 지역 교회를 통치하는 장로들로 구성됩니다. 교회의 목사 또는 교역 장로는 세션의 회원이며 세션을 주재합니다.

회중은 평신도 대표와 통치 장로를 선출합니다. 당회는 장로들을 장로교에서는 장로회라고 부르고, 개혁신교에서는 클라수스라고 부르는 다음 단계의 협의회에 보냅니다. 가장 높은 협의회는 총회 또는 시노드인데, 각각 장로교와 개혁신교에서 대표를 보냅니다.

회중 교회 정부는 회중에서 권위를 찾습니다. 지역 회중은 스스로를 통치하고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목사가 이끌거나, 직원이 이끌거나, 장로가 이끌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각 경우 회중이 최종 권위를 유지합니다.

지역 교회는 완전히 독립적이거나 교파에 속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회중이나 협회는 협회 회원 자격을 종료할 수 있는 능력 외에는 서로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협회나 대회는 일반적으로 교회 건강,

선교 및 신학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교회의 관계적 및 재정적 네트워크입니다.

전통적으로 회중 교회 정부를 실행하는 교회에는 침례교, 회중 교회, 그리고 많은 형태의 비종파 기독교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교회 정부의 형태가 독특하다고 말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간단히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특정 특징을 공유합니다. 즉, 우리는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의 핵심 가르침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잘 통합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성공회, 장로교, 회중교회는 서로 다른 정부 형태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장, 19장, 에베소서 5:25-28. 그러므로 그는 교회 전체 와 지역 회중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여기서 순진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말한 네 가지 형태의 교회 정부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공통점을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성경은 교회에 대한 권위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복음주의적 평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9절을 보십시오.

셋째, 이것은 핵심 가르침에 대한 복음적 요약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친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지도력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8:15-20, 사도행전 6:3. 넷째, 교회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 장로, 감독입니다.

목사라는 용어는 말씀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1-4. 장로는 성숙함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디도서 1:5-9. 감독이나 감독은 지도력과 행정 능력을 나타냅니다.

디모데전서 3:1-7.

자격을 갖춘 목사는 건전한 성격의 그리스도인으로, 가족을 잘 인도하고, 지역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3:1-7. 디도서 1:5-9.

또한 지혜, 타인에 대한 사랑, 겸손, 자제력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야고보서 3:1-18. 목사는 장로이고, 목사는 슬래시 장로이며, 그들은 교회를 돌봅니다.

베드로전서 5:2. 교회를 인도하라. 디모데전서 3:5. 말씀을 가르치라.

디모데전서 3:2. 오류에 맞서라. 디도서 1:9. 교회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라. 야고보서 5:13-15.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보이십시오. 베드로전서 5:3. 두 번째 직분은 집사입니다. 빌립보서 1:1.

집사의 주요 책임은 교회에 대한 봉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8-13에 나와 있듯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목사의 자격과 비슷합니다. 다섯째, 영적으로 은사를 받은 회중 자체가 교회의 사역을 성취하는 데 중심적입니다.

목사와 다른 리더들은 가르치고 인도하지만, 회중의 모든 구성원은 책임을 지고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종입니다. 에베소서 4:12-16.

그들은 주님,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다양한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고, 주고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고 받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목표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며, 은사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며, 교회의 건강이 증가함에 따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에서의 결정은 교회의 사명, 교회의 연합, 거룩함, 진실, 사랑을 반영해야 하며, 교회의 본성, 교회의 연합, 거룩함, 진실, 사랑,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반영해야 합니다. 교회 교리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금 살펴보는 사명입니다.

교회의 봉사 또는 사명에는 예배, 전도, 교화, 집사 사역이 포함됩니다. 교회의 봉사에는 예배가 포함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11절, 우리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웠으니, 이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제사장적 관점에서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여깁니다. 그의 희생으로서의 정말 아름다운 은유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15:5, 틀렸습니다. 로마서 15:15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적 봉사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목사가 되어 이방인들의 제물이 성령으로 받아들여지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전도사이고 그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봉사의 최고 목표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존 파이퍼가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교회의 봉사에는 경배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기도와 교회의 의식이나 성례를 지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둘째, 교회의 봉사에는 전도가 포함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적으로 접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배에서 나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 번이나 부인당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세 번이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힘든 회개이지만 좋은 회개이고 필요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참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돌보아라.

그는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제자도 양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나는 실제로 그랬다. 나는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 있었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끝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11명을 분명히 보내셨는데, 유다는 자기를 배반하기 위해 떠났고, 예수께서는 자기 주인을 배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복음 20:21)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 그를 살어나게 하는 신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받습니다.

용서를 보류하면 보류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영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로마서 15장에서 읽은 구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에는 전도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든 형태의 전도가 포함됩니다.

전도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대명령에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보았듯이요. 이 봉사에는 모든 하나님을 공경하는 형태의 전도가 포함됩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 전도, 교화. 저는 바울과 베드로가 말하는 방식을 모두 좋아합니다. 하느님은 영적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들은 그의 선물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그것들이 우리의 선물이 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 간직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7에 따르면, 각 사람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영의 나타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14:12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의 나타남을 간절히 원하므로 교회를 세우는 데 탁월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교화하고, 세워야 합니다. 인정은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며, 그것이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종종 무시되는 베드로전서 4장은 바울의 말씀과 훌륭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영들은 공동의 선을 위해 성령에 의해 주권적으로 주어집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각자가 은사를 받았듯이, 베드로는 바울과 동의하며, 모든 신자는 적어도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의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하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영적 은사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습니다. 그의 은혜는 다양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색이고, 여러 가지 색깔 이며, 모든 종류의 은사가 그에게서 나오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10. 공동선을 위해. 고린도전서 12:7. 서로를 교화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4:12. 서로 섬기라. 베드로전서 4:10.

나는 이해한다, 나는 이해한다, 나는 이해한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두 가지 예를 든다. 하나님의 신탁을 말하는 자로서 말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말하는 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자로서 섬기는 자, 이는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에게는 영원무궁토록 영광과 통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 나는 오직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 저는 교회의 봉사에는 교화가 포함된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여기에는 제자를 만드는 것과 교제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봉사에는 예배, 전도, 교화, 집사 사역, 사회 활동이 포함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정말 놀랍습니다. 바울이 올라가서 그 전에 사도였던 사람들, 기둥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복음에 더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자를 손에 들고 올라가서 그들의 열매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는 동등한 자로서 올라가고, 그들은 나누고,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2:10은 주목할 만합니다. 분명, 그들이 이 맥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 요점입니다.

2:10과 2:9. 그리고 기둥처럼 보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아람어 이름인 야고보와 게바가 나에게 이방인에게 가는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유대인에게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나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어 우리도 그들이 할렐받은 자에게 가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세요.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고만 부탁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일이에요.

제 말은,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심사가 있고, 교회의 사역 중 하나, 주요 사역으로서 관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 주요 사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전도와 교화도 포함되지만, 사역의 일부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특히 믿음의 집안 식구들에게.

갈라디아서 6, 10. 선행을 하는 데 지치지 말자.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갈라디아서 6:10,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자. 특히 믿음의 집안 식구들에게 선을 행하자.

야고보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라고 말합니다. 당신과 내가 그 구절을 몰랐다면, 우리는 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잃어버린 자를 얻고, 균중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아니면 요한일서 3:16-18은 어떨까요?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능력이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당신 안에 거합니까? 요한일서 3:16-18.

교회의 봉사에는 집사 사역이 포함됩니다. 저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기초로 포함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비의 모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역이 포함됩니다.

저는 Amy Sherman의 책 *Restorers of Hope* 와 Tim Keller의 *Ministries of Hope*를 추천합니다. 자비. 우리는 이 과정의 절반을 교회 교리를 다루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정의 나머지 절반에서는 최후의 것들에 대한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와 그의 교회 교리와 마지막 것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교회의 의식, 교회의 통치, 교회에 대한 핵심 가르침, 그리고 교회의 봉사입니다.